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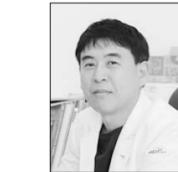
건강 칼럼

실명 유발하는 포도막염

시력 손실을 야기하는 대부분의 안질환은 보통 노화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도막염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갑자기 발병하여 심하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시력 저하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포도막염. 11월 11일 눈을 맞아 포도막염에 대해 알아보자.

▲포도막염이란? 포도막은 안구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홍채, 모양체, 맥락막을 말하며, 혈관이 풍부하여 염증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포도막에 생기는 염증인 포도막염은 그 위치에 따라 앞포도막염, 중간포도막염, 뒤포도막염으로 나뉘며, 이 모든 위치에 다 생기는 형태를 '전체포도막염'이라 부른다. 원인으로서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외상, 염증성 전신 질환 등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특발성 포도막염도 발생할 수 있다.

▲포도막염의 증상 및 진단 포도막염은 그 위치와 염증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포도막염은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충혈, 통증,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몹시 부시며 눈물이 나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염증이 심한 경우 시력 저하를 호소할 수 있다. 중간포도막염, 뒤포도막염일 때는 시력저하와 비문증 등이 주로 나타나며, 뒤포도막염의 경우 눈부



최영득

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위원장

심, 변시증(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포도막염에 의한 증상은 다른 염증성 질환인 결막염, 각막염, 혹은 공막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눈 뒤쪽의 염증 여부를 확인하고자 안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타 안질환의 감별이나 망막 합병증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형광안저촬영이나 빛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진단을 위한 안과적 검사 외에도 포도막염과 동반된 전신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도막염으로 인한 합병증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포도막염 자체로도 시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시신경을 침범하거나 황반부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차적으로 시력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안구로 상태는 눈의 전반적인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검은 동자 혼

탁, 안압저하, 큰 크기 감소, 시력상실 등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포도막염의 치료에는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이 사용되는데,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약에 의한 영향으로도 백내장, 녹내장, 안검하수, 위궤양, 당뇨, 고혈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점검과 치료가 필요하다.

▲포도막염의 치료 감염성 원인의 경우 감염을 일으킨 원인균 혹은 바이러스에 적합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되며, 감염성이 아닌 경우 염증 조절을 위한 국소적 치료인 안약 점안 혹은 스테로이드 복용이 필요하다. 재발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포도막염 관련 Q&A ▲포도막염과 결막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포도막염은 특히 결막염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유행성

결막염의 경우에는 눈 이물감, 가려움증, 눈부심, 통증, 충혈 등이 발생한다. 충혈 양상도 결막염에서는 흰자위 전반에 발생하지만, 포도막염에서는 주로 검은 동자 주변에 더 심하게 발생한다.

▲포도막염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매우 심하게 발생한 경우 수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눈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로이드 안약은 어떻게 점안해야 하나요?

스테로이드 안약은 투명하지 않은 혼탁액으로, 안약을 넣기 전에 반드시 안약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약을 고르게 섞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염증이 조절된 후에는 서서히 점안하는 양을 줄여가며 끊어야 한다.

시력저하뿐 아니라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안질환임에도 아직까지 질환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깐 그러다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여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뒤늦게 치료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눈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상이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안과 검진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설

예타 면제로 동서 발전의 길 열어야

전북도의 행보가 도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들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사업들에서는 주로 검은 동자 주변에 더 심하게 발생한다. ▲포도막염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매우 심하게 발생한 경우 수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눈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로이드 안약은 어떻게 점안해야 하나요? 스테로이드 안약은 투명하지 않은 혼탁액으로, 안약을 넣기 전에 반드시 안약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약을 고르게 섞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염증이 조절된 후에는 서서히 점안하는 양을 줄여가며 끊어야 한다. 시력저하뿐 아니라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안질환임에도 아직까지 질환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깐 그러다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여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뒤늦게 치료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눈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상이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안과 검진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여기 또 다시 말하는 비는 이제 한반도의 발전을 동서를 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 이후 수십년 동안 남북을 축으로 발전의 판도를 그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간 지점의 신흥도시 대전이 광역시로 급성장했다. 1949년에 전주가 시로 승격되었을 때 대전은 이쪽의 태인과 함께 읍이 되었을 뿐인데 말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옛적의 일이라도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지금은 동서 발전을 축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공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 공감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는 게 전북 발전의 절경이다. 본보가 사실을 통해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여러 번 토로 했거나 아쉬운 것을 열거하자면 하나들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도 필요하다. 예전에 도세가 우리보다 못했던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는 예타면제의 성공으로 국가 발전의 틀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모든 선량은 공인의 자세를 망각하지 말아야

모든 선량은 양심을 지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선량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도내에 그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이들이 많아서 문제이다. 그들 때문에 전북 도민 전체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선량이 왜 가지고서 안 좋은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게 무슨 전봉이라도 되는지 도민들은 한심스럽다는 표정들이다.

도민 대다수는 지난해와 올해 몇몇 인사에게 있었던 비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잇따른 사퇴와 사과와 변명은 도민들이 보기에 매우 속 상하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이 선거철도 아니고 최근에 그 어떤 주요 인사의 범죄 행위가 새롭게 발각된 것은 없다. 그래도 이같은 언급이 새삼스럽거나 엉뚱하다고는 다들 생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최규호 전 교육감 때문이다. 그가 지난 6일 저녁에 인천광역시에서 단골 식당에서 검거돼 다음날인 7일에 수인 변호가 달린 죄수복을 입고 전주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다.

여기 다시 언급하거나 모든 선량들은 행동이며 일처리를 조심해야 한다. 뜯어보면 전북 만

큼 선량들이 빈축 대상이 된 지역도 드물다. 민선 역사 내내 도지사 1명을 포함해 시장과 군수 등 18명이 구속되거나 낙마라는 불명예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최규호 전 교육감의 경우는 정말이지 치욕적이다. 그것은 뇌물수수라는 죄 그 자체보다는 8년 2개월 동안이나 도피행각을 벌였다는 비겁함 때문이다. 그 치욕적인 부끄러움은 두고 두고 반면교사의 대상이 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가 한때는 전북 교육의 최고 수장이었기 때문에 전북도민 모두가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자신을 뽐내준 주인의 뜻에 반하는 짓은 처음부터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량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고 견뎌야 한다. 선량의 자리는 높은 벼슬자리가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자리도 아니다. 도둑질 하려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모든 선량은 최규호 전 교육감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인의 자세를 먼저 생각해야만 되겠다.

독자제언

왜 경찰관들은 안전벨트를 안할까?

안전벨트는 탑승자가 있는 도구 등에 달린 탑승자를 고정해주는 끈이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몸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착용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임의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앞 좌석, 뒷 좌석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국민들은 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를 국민만 하라고 하는지, 왜 경찰들은 출동을 하거나 활동할 시 착용하지 않는지, 심지어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은 경찰관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특권이 아니라 예

외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벨트띠 예외사유)에 나와 있다.

정확히는 긴급자동차가 예외사항에 해당하고, 경찰차가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찰용 자동차 중 범외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외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등 같은 이유로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앞서야 하는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황지는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공화당, '집권당 중간선거 패배' 역사 극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수를 늘리고 하원에서의 의석수 상실은 최소회해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역사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